

담배 한 모금이 우리의 희망일 수 없다

지금 까지 받아 들여지고 인정돼 왔던 학설과 경향에서 정반대되는 새로운 진실이 밝혀지고 그래서 그 새로운 세력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할 때즈음 기존의 세력들은 “반발”한다. 기득권을 지키기에 열심일 수밖에 없으며 그래서 두 세력간에 치열한 논쟁이 불기도 한다. 내가 옳으니 니가 옳으니 하면서.

흡연이 사람에게 해롭다는 상식과 국·내외적으로 금연이 일반적인 추세로 확산되면서 기존의 흡연진영(각종 흡연 및 애연가 단체)은 흡연의 이점과 흡연 권리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기득권을 사수하기에 열심이며 여기서 물러설 수 없다는 태도이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 엄청난 담배판매 수익을 놓칠 수 있겠는가!

바야흐로 흡연진영과 금연진영의 싸움이 지금은 물밑에서 서로가 자기 소리를 가다듬고 한 판 불을 태세를 준비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 주장들이 불거져 부딪쳐서 밖으로 돌출해 나올 것이다. 아니 어쩌면 이미 시작됐을지도 모르겠다.

시대를 핑계삼지 말자

우리는 IMF 외환위기 관리 체제하의 힘든 시기를 맞이했고 경제적 침체로 실업의 고통은 당한 사람만이 알 것이다. 지켜보는 제3자의 입장에서 아무리 힘들지라도 꺾이지 않자고 한들 씨알이나 먹히겠는가 어찌면 참 한가한 소리나 하고 있다고 하기 십상이다. “너도 한 번 실직 당해봐라 그런 소리가 나오나” 하며 “금연은 별 대수롭지 않은 사안”이라고, 지금 “먹고 사는게 중요한 판에”라고 말이다.

그런데 진심으로 이 힘들고 살벌한 현실속에서 “건강만큼은 잃지말고 꼭 붙들고 살자”는 원칙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 한편 경제 난국의 시대를 맞아 이런 얘기들이 심상치 않게 유행처럼 떠돌고 있다.

“사실 벼랑 끝에 내몰린 이들에게, 긴장과 근심 걱정으로 뒤범벅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담배가 해로운지 어떤 지를 따지고 드는 것은 별로 의미없는 일이다. 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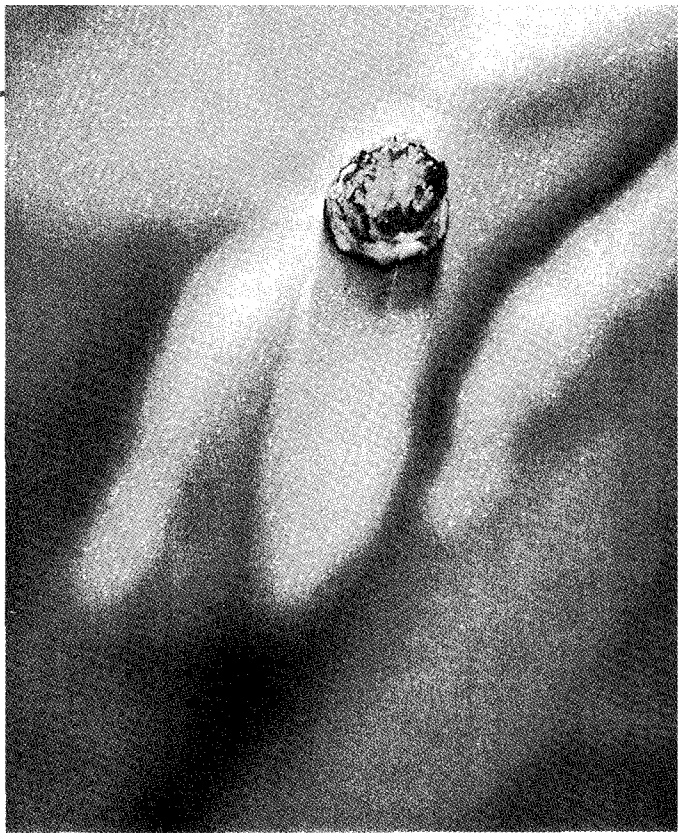
음의 긴장과 스트레스, 시름과 걱정을 몰아내 평정을 되찾는 일이 육체의 건강을 지키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앞에도 언급했지만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이 불안의 시대에 금연의 논리들이 그들에게 먹히겠는가, 심분 이해하고도 남는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글쓰기는 온당치 않다.

단언컨대 건강한 글쓰기, 건강한 생각이 아닌 것이다. 자! 우리 앞을 좀 “길게” 보자.

어렵고 지친 이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냉철하고 이성적이며, 실천적 현실적인 대안이 지 결코 담배를 피우면서 회피하는게 아니지 않은가. 흡연하며 긴장,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의 평정을 되찾는다고? 아니다. 그건 다분히 상상력에 기댄 감상적이고 감정적인 비이성적인 논리이다. 더구나, 육체의 건강을 지키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니, 왜 그들의 몸까지 병들게 하려는가! 그것은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합리적 대안을 구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

마음이 병든 실직·노숙자들에게 술



과 담배로 인해 몸까지 망가뜨리는 경우를 눈앞에서 보면서 말이다.

결코 담배 한 모금이 우리의 희망일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담배 한 모금으로 우리의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가? 이 힘든 IMF는 언젠가는 극복될 것이며(합리적인 경제적 구조조정과 국민들의 노력으로) 우리들은 또한 IMF 시대만을 살고 말 것이 아니지 않은가. 「IMF 시대, 건강 만큼은 잃지 말자」는 구호를 가슴 한쪽에 고이 새겨두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들리는 소리 중에서 힘든 시기를 맞아 흡연율

이 높아졌다고 한다. 어려운 때일수록 담배만한 것이 없다고 한다. 시대를 이유로 흡연이 미화되고 있는 셈이다.

흡연으로 걱정과 스트레스가 해결된다고 한다. 직장과 각종(인간) 관계들에서 맞게되는 일상의 스트레스, 고민에 담배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수단이다. 하지만 흡연은 단순히 하나의 “중독된 습관”일 뿐, 거기에서 어떠한 도움을 구할 수 있겠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흡연이 당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해 줬는지 생각해보라.

이 불황의 시대에 흡연율이 높아진다면 참 안된 얘기일 수밖에 없으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 현상일 뿐이며, 끝내는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우리가 이겨내야 할 하나의 일시적 장애일 뿐이다. 시대를 핑계삼아 스스로 담배에 대해 관대해지지 않기를 당부하고 싶다.

금연이야말로 개인의 참된 자유이면서 기본권 이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흡연에 대한 경고를 전해주고 싶다.

“아무리 애써 외면하려 해도 담배연기가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쪼먹는다는 사실에는 변함 없다. 아빠가 담배를 피우면 아이들은 감

기와 기관지염, 폐렴에 잘 걸린다. 또, 한번 이런 병에 걸리면 잘 낫지 않고 천식이 생기기도 한다. 축농증과 중이염도 잘 생기고 중이염 합병증으로 중이에 물이 차 청력 손상이 오기 쉽다. 이 정도로 그친다면 차라리 행복하다.

어릴 때 담배연기를 마시고 자란 아이들은 나중에 폐암이나 심장병에 잘 걸릴 뿐 아니라 백내장이 생겨 눈이 멀 수도 있다.

더 겁나는 사실은 어린아이가 있는 방에서 담배를 피우면 아이가 영원히 잠드는 유아돌연사 증후군의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시사주간지 “한겨레 21” 제212호 '98. 6. 18일자. 아빠의 흡연에 아이가 괴롭다 中) 그리고 연합통신 7. 14일자의 기사중에서, 미국 과학건강협회(ACSH)가 7월 12일 밝힌 바에 따르면 “흡연을 한 번 시작하면 5년 이내에 인체 각 조직에

손상을 주며 이러한 손상이나 후유증은 금연후에도 평생동안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전한다.

특히 “폐, 심장, 눈, 구강, 목, 생식계통, 피부 등의 신체조직에 대한 흡연 피해는 영구적인 것이며 금연을 한다해도 그때까지 손상되지 않은



부위의 추가적인 손상을 막을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

엘리자베스 윌런 미국과학건강협의회 의장은 "오늘 담배를 끊는다면 내일 끊는 것보다 좋다. 그러나 담배를 끊는다고 인체에 주는 피해가 끝나는 것이 아니기에 아예 처음부터 담배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했다.

애연가들이나 흡연 예찬가들은 흔히 이런 말들을 많이 내세운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흡연을 하건 뭘 하건 그것은 순전히 개인의 자유이며 기본권이다" 또는 "담배를 오랫동안 피워 왔어도 아무 탈없이 우리 사회는 장수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어떤 방법을 선택하건 그건 어디까지나 순전히 개인의 자유다"라고. 물론 맞는 말이다. 당연한 말이다. 초등학교 학생들도 아이들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개인의 자유, 권리이다.

그런 한편에 시민운동 차원에서의 금연운동은 건강한 사회, 인간적인 사회를 지향하는 대(對)국민, 일반시민을 상대로한 홍보운동의 성격을 가진다.

이것은 개인의 자유 못지않게 중요하다. 금연운동의 결과로 흡연을 시작하는 청소년들이 줄어 들고 사회적으로는 금연이 상식화될 때 그래서 건강한 국민, 건강한 사회에 일조하게 된다. 즉, 금연의 선택으로 한 개인이 좀 더 나은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넓은 의미

에서의 "개인의 참된 자유"라고 말할 수 있으며 흡연 주창자들이 주장하는 개인의 자유를 뛰어 넘어선 진정한 자유일 것이다.

금연을 위해 머리, 심장, 발로 뛰자

신문기사에 의하면, 애연가들의 반격이 시작되어, 「흡연권 보장을 위한 쟁기대회」를 열어 흡연을 법적으로 제약하는 국민건강증진법 폐지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으며 실내금연구역 설정 철회, 금연단체 해체, 공공시설에서의 금연조치 철회 등을 내걸고 있다고 전한다.(중앙일보 7. 31일자)

그러나 애연가 및 단체들은 흡연예찬 논리와 흡연권리에 대한 적절한 금연의 논리와 대응방식은 연구하되 사사건건 맞대응 한다거나 말려들어 갈 필요는 없겠다. 전세계의 흐름은 바로 금연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담배가 몸에 안 좋긴 안 좋은데" 하는 인식 정도는 이제 성인들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건강이 이 시대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중의 하나로 자리잡았다. 아무리 담배예찬에 열 올려도 어차피 담배는 지는 해(?)이다.

코 앞에 다가온 21C에는 지금의 마약처럼 담배 역시 법적으로 제조 판매 유통되지 못하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바란다. 차분하게 그러나 꾸준히 금연의 확산을 위해 머리와 심장과 발로 뛰어야 할 때다. †(편집부)